

박사학위논문

문학 화용론과 직시어 번역

- *The Vegetarian*을 중심으로 -

구상본(Sang Bon Koo)

동국대학교

1. 연구의 목적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The Vegetarian*으로 번역한 데버라 스미스는 ‘창조적’이지 않은 번역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번역을 ‘창의적 다시 쓰기’로 규정하였다. 오역이나 번역평가를 중심으로 한 스미스의 번역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원작과 대비한 번역물에 대한 연구가 논의의 초점이 된 것이지만, TT 독자들에게 대한 스미스 번역의 소통적인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는 창의적 역할을 수행하는 번역가의 지위를 인정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필자는 오역을 논하는 번역평가나 번역에 대한 해석학적 관점 또는 번역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스미스의 ‘창의적 다시쓰기’를 *The Vegetarian*의 직시 현상을 통해 문학 화용론의 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Mey(2001)가 전개한 문학에 대한 화용론적 논의의 의의를 인정하고, 문학텍스트의 화용적 전제와 화용적 함축을 다루며, 직시를 비롯한 화용론적 개념과 연구성과를 적용하는 문학 화용론을 논의의 배경으로 하였다. 직시체계는 언어가 맥락의 자질을 기호화하거나 문법화하는 방법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발화해석이 그 발화맥락의 분석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작가가 ST에서 사용한 직시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T 독자는 해당 표현의 발화맥락에 대한 화용적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번역가는 우선 ST 독자로서 그 표현의 발화맥락에 대한 화용적 정보를 이해하여, TT 작가로서 TT 독자를 위해 ST의 직시어 표현에 대한 번역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차적 전달과정에서 해당 표현의 변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변환 원인 가운데 번역가의 문체적 개입이 있으며, 그

결과·창의적 다시쓰기'가 이루어진다.

2. 이론적 배경

Levinson(1996)의 직시논의가 직접적으로 문학을 대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직시를 모든 언어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하였으므로, 본 고의 연구대상인 직시어 번역의 변환분석을 위해서 문학 화용론에 대한 Mey의 주장을 기반으로 하여, Levinson(1983)의 직시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고에서는 번역의 목소리와 심리적 근접성, 즉 시점과 지시를 다루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인칭직시와 장소직시로 직시의 범주를 한정한다.

직시어 번역의 분석에는 ST의 직시표현이 번역가의 번역과정을 거쳐 TT에서 어떤 변환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독자와 작가로서 번역가가 원작 작가가 원작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직시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직시어 번역 현상에서도 문법을 포함한 언어적 차이와 맥락정보, 공유지식의 차이로 인해서 ST가 TT에서 변환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자명하다. 직시란 맥락에서 누구의 시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맥락의존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시어 번역에서 서술자의 시점과 캐릭터의 시점에 대한 문체적, 화용적 정보의 변화, 그리고 서술과 텍스트로 표현된 발화의 지시표현에 담긴 심리적 근접성, 인지상태, 관심의 이동에 대한 문체적, 화용적 정보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았다. 품사 상으로는 ST의 인칭대명사와 지시관형사, TT에서는 인칭대명사와 지시사 그리고 ST의 해당 표현에 상응하는 표현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시점에 관한 분석 데이터로는 ST에서 화자의 발화에서 사용된 일인칭대명사 ‘나’, ‘우리’, ‘저’, ‘저희’와 TT에서 이에 상응하는 표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시에 관한 분석 데이터로는 ST에서 지시관형사 ‘이/그/저’와 TT에서 이에 상응하는 지시사 표현 등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직시어 표현의 변환에 대한 분류범주로서, 시점을 나타내는 직시표현은 ‘화자유지/화자상실/시점전환/시점전환 상실/변경(대체 또는 생략)’을, 심리적 근접성을 나타내는 직시표현은 ‘근접성 유지/근접성 상실/시점전환’을 각각 적용하였다. 본 고는 이러한 변환현상에 대해 TT의 직시표현의 관찰, 분석 및 ST와 TT의 직시표현의 비교, 대조 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해당 TT의 변환현상을 이해하고

자 한다.

시점전환과 근접성의 변환을 TT 분석을 위한 두 가지 기준으로 채택하여, 1부, 2부, 3부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변환유형에 대한 집계와 함께 해당 변환유형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시점전환에서는, ST의 인칭직시어인 화자지시표현인 ‘나/우리’ 등이 TT에서 화자유지, 화자상실, 시점전환(시점전환의 상실), 대체 및 생략을 일으키는 변환현상을 분석하고, 근접성의 변환에서는 ST의 장소(인지적인 공간)직시어인 심리적 근접성 표현 ‘이/그’가 TT에서, 근접성 유지, 관점전환, 근접성 상실을 일으키는 변환현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여기서 변환유형의 차이에서 발견되는 ST와 TT의 차이를 단순히 오역이라고 규정짓지 않고, 번역가의 담화개입 흔적으로 간주하여 번역가가 문체적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창의적 다시쓰기’를 시행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분석결과

3.1. 시점전환

ST에서의 화자표현이 TT에서 그대로 전달되거나 상실되고, 또한 ST에서의 시점 전환이 TT에서 유지되거나 상실된다. 또한 ST의 화자표현이 TT에서 대체, 생략되어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ST의 시점을 TT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단순히 오역의 기준에서 ST와 TT의 차이를 평가하지 않고, 직시어 번역의 입장에서 그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며,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스미스가 어떻게 ‘창의적 다시쓰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번역에서 시점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번역가가 자신의 주관에 따라 화자, 청자, 제3자 등 대화참여자의 역할을 변경함으로써 ST를 ‘창의적 다시쓰기’한 것이다.

TT의 1, 2, 3부에서 화자지시 표현의 변환유형 집계에서 화자유지는 1부, 2부, 3부가 각각 112회(81%), 128회(90%), 108회(88%)이며, 3부작 중 2부의 화자유지 비율이 가장 높다. 화자상실은 1부, 2부가 각각 10회(7%), 3회(2%)이며, 3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점전환은 1부, 2부, 3부가 각각 8회(6%), 5회(3%), 9회(7%)이며, 3부가 가장 높다. 시점전환상실은 1부에서 1회, 3부에서 2회 발견되었다. ST의 화자지시 표현이 TT에서 대체되거나 생략되는 변환은 1부, 2부, 3부에서 각

각 8회(5%), 7회(5%), 4회(3%) 발견되었다. 화자유지 이외의 변환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시점전환과 변환(대체/생략)이었다. 다만 1부에서는 화자유지가 아닌 변환 중에서 화자상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번역가의 담화 개입 흔적을 나타내는 ‘화자상실/시점전환/시점전환 상실/변화-대체 및 생략’의 비율의 합은 1부, 2부, 3부에서 각각 27회(19%), 15회(10%), 15회(12%)로서, 작품 전체적으로 해당 변환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은, 번역가가 발화에서 대화참여자의 역할을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담화상황에 대해 번역가가 개입하여 자신의 흔적을 남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화자지시 표현의 변환양상에 대한 분석결과, 즉 번역가의 문체적 개입 비율이 낮은 것을 근거로, 시점의 관점에서 스미스가 TT를 통해서 ST의 소통적 실마리를 적절히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2. 근접성의 변환

‘이/그/저’, ‘this/that’은 공간직시어로서 발화가 이루어지는 발화상황을 이해해야 해당 발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공간직시어는 단지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심리적 공간, 즉 인지상태, 감정의 전달, 관심의 집중과 이동에도 빈번히 사용된다. 따라서 ST의 공간 직시어가 TT에서 어떤 공간 직시어로 전달되는지 또는 상실, 대체, 생략되는지에 따라 ST에서 전달하는 의미와 TT에서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심리적 근접성이 ST와 TT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유의미하게 달라졌다면 스미스의 ‘창의적 다시쓰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이다.

공간직시어가 갖는 심리적 근접성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분석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변환현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텍스트는 원작과 번역이 모두 3부작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The Vegetarian*, *Mongolian Mark*, *Flaming Trees*의 순서로 변환유형의 분석을 진행한다. 변환유형은 ‘근접성 유지/관점전환/근접성 상실’로 나누었으며, 3부작 각각의 분석에서 해당 변환현상을 집계 분석하고, 유형별 사례를 언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ST에서 화자의 관심, 심리적 근접성을 표시하는 지시관형사 ‘이’와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그’의 분포는 3부작 전체에서 각각 61회와 178회로서 ‘그’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1부, 2부, 3부 모두 71% 이상의 비율을 유지한다. 전체적으로는 화자

근칭보다는 칭자근칭 표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3부작 전체가 영해를 주인공으로 하면서, 1부는 일인칭 서술자, 2, 3부는 삼인칭 서술자 시점으로 서술하는 것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TT의 1, 2, 3부에서 ‘이’의 근접성 유지는 전체적으로는 52%이며, ‘그’의 근접성 유지는 전체적으로 23%를 차지하며, 근접성 상실의 비율은 ‘이’의 43%에 비해 ‘그’가 74%로서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이 1, 2, 3부를 대상으로 하여 직시어로 기능하는 지시관형사 ‘이/그’의 화용적 특징을 중심으로 직시어 번역의 관점에서 ST와 TT를 대조, 비교하였다. ST의 지시관형사가 TT에서 약 48-77%의 변환과정을 겪었으며, 특히 근접성 상실이 지배적이었다. ‘이’가 that으로 바뀌는 관점전환은 5%, ‘그’가 this로 바뀌는 관점전환은 3%를 차지했다. 이런 관점전환은 번역가가 해당 지시대상에 대한 화/칭자의 공간적, 심리적 관점 전환을 번역과정에서 취한 것이다(조의연 2009: 242). 근접성 상실의 경우, 언어간 언어체계 차이에도 불구하고 TT에서 근접성 상실이 근접성 유지에 비해 현저히 높게 발생한 것은 번역과정에서 번역가의 ‘창의적 다시쓰기’가 이루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4. 결론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스미스의 ‘창의적 다시쓰기’를 *The Vegetarian*의 직시 현상을 통해 문학 화용론의 틀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창의적 다시쓰기’를 번역 수행에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한 스미스의 입장에 대해, *The Vegetarian*의 직시 현상을 통해서 고찰하고 이를 문학 화용론의 틀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본 논문은 ST와 TT의 직시어 표현을 대상으로 ST와 TT를 대조, 비교, 분석하여, TT에서 어떤 변환이 발생했는지 유형의 구분 및 빈도와 비율의 집계, 문학 화용론 및 직시론의 개념 적용을 통해서, ‘창의적 다시쓰기’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스미스는 문학적 스타일은 지문과 같은 정체성의 표지를 넘어서 기능과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점전환의 기준에서 볼 때 스미스는 ST의 대화참여자 역할을 존중하면서 문체적 효과를 TT독자에게 적절히 전달하였고, 근접성 변환의 기준에서는 ST의 심리적인 근접성에 대해 번역가로서 문체적 흔적을 남김으로써 ST를 창의적으로 다시쓰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The Vegetarian*에

등장하는 직시어 번역 변환현상을 시점(인칭직시)과 심리적 접근성(장소직시/공간 직시)의 관점에서 분류, 분석하였고, 그 결과 TT 독자에 대해 기능과 의미적 측면에서 ST의 문체를 전달하면서 번역가의 담화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문학 화용론을 기반으로 한 직시어 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 *The Vegetarian*은 ST의 문체적 실마리를 충실히 전달하는 한편 번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ST의 화용적 의미와 특징을 TT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창의적 다시쓰기’를 성취하였다고 평가된다.

시점과 심리적 근접성은 모두 화자, 청자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문학작품의 화용적 특징을 이해하려 할 때, 이런 개념을 통해서 번역가의 문체적 개입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번역학 연구에서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시점전환의 기준에서 인칭직시어인 인칭대명사의 변환유형 ‘화자유지/화자상실/시점전환/시점전환 상실/대체 및 생략’의 범주 구분과 근접성 변환의 기준에서 장소직시어인 지시관형사의 변환유형 ‘근접성 유지/관점전환/근접성 상실’의 범주 구분을 통해서, TT에서 직시어 번역의 변환현상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도 유용한 언어데이터 분석방법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Levinson, S. C. (1996). 이익환·권경원 공역, 『화용론』. 서울: 한신문화사.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y, J. L. (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 2nd ed., Blackwell: Oxford and Malden.

본 초록은 ‘구상본. (2021). 문학 화용론과 직시어 번역: *The Vegetarian*을 중심으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Author's email address

sangbonk@hanmail.net

sangbonk@dongguk.edu

About the author

Sang Bon Koo earned his Ph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pragmatics and literary translation evaluation.